

##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 (四)

플라톤

鼎言生

『氏의 略傳』 氏는 소크라테스氏의 哲學을 繼承하고 自己의 達識를 中心으로 하며, 前代 學說의 長所를 參考하여 完全한 哲學을 組織하였으므로 希臘 哲學의 基礎를 確實히 하였으며, 教育은 國家의 重大한 政務로 主張하든 希臘 三大 哲學者 中의 一人으로 紀元前 四二九年에 아덴[아테네]에서 生하였도다. 氏는 소크라테스氏의 高弟로써 哲學을 修得함이 十有餘年 間에 大히 深奧한 哲理를 解한 後에 埃及에 遊하여 理學을 研究하고, 更히 南伊太리에 跡을 投하여 「구로도나」學校에서 益々히 學術의 深大한 理를 研究한 後, 아덴에 歸하여 無謝儀 學校를 設立하고 아카데미의 林中으로써 教育所에 充하니라. 氏의 門人은 甚히 多한 中 彼の 有名한 論理家 『아리스토텔레스』及 『데모스테네스[데모스테네스]』, 『케노쿠라테스[케노크라테스]』氏와 如한 碩儒는 皆此門下의 高弟이로다. 然이나 氏는 實노 一人의 親友가 無하고 恒常 孤立함과 如히 其의 全能力은 全히 哲學 研究의 犧牲에 供할 뿐이오, 暫時라도 他를 顧할 少暇가 無하였다 云하는도다. 享年 八十三에 至하여 某宴席에 列席하였다가 不意의 病으로써 眠함과 如히 黃泉의 旅에 就하였도다.

『氏의 教育主義』 完全한 教育은 人의 身體 及 精神에 及할 만한 健康과 美妙를 附與하여 身心이 共히 完全케 함을 主張하였으며, 更히 進하여 教育은 다만 精神과 身體를 完全히 함에 止할 뿐 아니라, 精神에 至重한 關係가 有한 諸勢力을 養成하며 此를 發育케 할 者이라 論하였다. 然하여 氏는 人의 精神을 三大部分으로써 組織別을 分하였스니, 第一慾魂은 腹中에 在하여 慾情의 發源이 되나니, 其□이 野卑한즉 此를 抑制함을 不得하는 者. 第二勇魂은 胸中에 在하여 勇敢奮怒의 源泉이니, 此를 善惡 二個로 分함을 得할 者. 第三德魂은 頭腦 中에 在하여 所謂 不滅에 屬한 것이니 溫良, 從□, 友愛 及 識量 等の 源泉이라.

然즉 教育의 至大至重한 任務로 할 者는 第一慾魂을 制抑하고 第二로 勇魂, 德魂의 二魂을 調和 平均케 하여써 二者가 共히 完全하기를 期할 者이라.

만일 不然하여 德의 原素 畚을 獎勵함이 程度에 過한즉, 其溫□의 德은 反히 怠弱에 陷하며 其敏活은 變하여 苛激이 되고 其愛情은 移하여 淫慾의 馳에 至하니라. 또한 此에 反하여 體育을 獎勵함이 極奔한즉, 其의 才智 能力은 不知中에 消耗에 歸하고 勇氣는 組暴에 流하며 高尚은 高慢에 變하는도다. 故로 教育은 반다시 此의 二原素를 適宜히 調和하고 相互의 平均을 得하게 할 者이라 하여, 氏의 教育終極의 目的은 소쿠라테쓰氏와 同히 道德으로 써 至大한 主義를 作하니라.

『氏의 教育法』 氏는 教育으로써 國家의 重大한 國務로 함과 共히 國民을 官吏, 軍人 及 平民의 三階級으로 別하여 官吏와 軍人만 教育을 受할 事로 하고, 其의 教科目은 算術, 幾何, 天文, 修辭, 音樂, 美術과 諸學의 眼目 되는 哲學 等으로 定하얏도다. 就中 가장 重大視하는 科目은 算術로 하여 其共和 政體論 中에도 算術은 法律上의 必修科目으로 하얏스며, 또한 將來 國家의 大事에 參與코자 하는 者는 반다시 一身을 委하여 算術 研究에 供할 者이로다. 此는 區々히 商賣的의 目的에 在함이 아니라 戰術을 理解하고 쏘는 精神의 浮薄을 轉하여 正直케 하는 者는 此에 過할 者라 無전하다 論하니라.

體操에 關하여야는 身體의 發育 畚에 有益할 畚 아니라 精神을 健全케 함에 多大한 良效가 有하다 하여 大히 獎勵하얏스며, 德育에 害가 無한 限에는 舞蹈와 如한 者도 基本科目에 加할 者이며, 又 音樂을 獎勵하여 神聖한 聖歌及 諸勇士의 頌歌를 唱케 하여써 雄大한 氣像과 敬神의 思想 及 國家的 觀念을 養成하얏도다.

氏는 又 美術으로써 德育上의 必須科目으로 하얏스니, 此는 人間은 美에 依하여 善에 進한다 意味하얏도다. 然하여 其教授法은 生徒에 困難한 科目을 授함과 同時에 一方으로는 愉快한 科目을 與하여, 如何히 困難한 科目이라도 隱然히 興味가 有한 方法을 執하여 生徒의 心理를 不知不識의 間에 誘導하고, 其學修 履行할 科目으로써 此를 無上의 樂으로 하며 此를 唯一의 愛로 하게 하얏도다. 一言으로써 此를 蔽한즉 學校로써 愉快의 源泉으로 하얏스며, 又 一方에는 人의 父兄된 者 其의 兒女에 對하여 苦痛과 困難 畚 與함을 非難하며, 쏘는 小兒의 自由에 委하여 此를 喜깨 하는 僻見은 도로혀 兒女에 對하여 自由我라 하는 慢性을 形作케 하는 것이라 하얏도다. 故로 小兒의 게는 罰을 與함보다도 愉快를 與할 것이며, 此에만 止할 畚 아니라 此에 또한 困難과 苦痛을 加치 아니함이 不可하다 하니라. 如斯히 氏는 一方에는 愉快

한 興味를 與하야 스스로 進하야 智識의 修得에 勉勵케 함과 同時에, 他方에 在하야는 困難과 苦痛을 與하야 精神과 身體를 鍛鍊케 함으로써, 教育의 眞目的에 達한다 하엿도다. 故로 氏는 教授에 臨하야 恒常 賞罰을 必信함으로써 大務로 하야 生徒로써 其慈함에는 母와 如히 하며 其嚴함에는 父와 如히 하야, 精神과 身體를 課業 修學 中에 愉快困難裏에 並히 鍛鍊 向上케 하엿도다.